

연예뉴스 HOT 3

엄정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올해의 인물'



배우 엄정화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됐다. 5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는 '올해의 인물'인 '집페이스'(JIMFFACE)로 엄정화를 선택했다. '집페이스'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대표하는 얼굴의 의미로, 올해 신설됐다.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닌 1인을 선정해 영화 특별상영, 관객과 대화 등으로 집중 조명한다. 엄정화는 1993년 데뷔해 영화 '댄싱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등에 출연했다. 또 '배반의 잠미', '포이즌' 등 많은 히트곡을 지닌 가수이기도 하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브레이브걸스, NGO 굿피플 기부 챌린지 참여



그들 브레이브걸스가 기부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브레이브걸스가 '아이돌챌린지:어 나더클래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 스타가 기부 미션에 도전해 기부금을 모아, 이를 국내외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브레이브걸스는 9일과 17일 유튜브 채널 '더 케이팝(The K-POP)'을 통해 '엔택트 100초 인터뷰', '랜덤 노래방' 등 미션에 참여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이후 굿피플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마동석, 게임 '배그' 신맵 플레이 캐릭터 등장



배우 마동석이 게임 캐릭터가 된다. 소속사 빅픽처엔터테인먼트는 "마동석이 7일 출시되는 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플레이 캐릭터로 등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4일 빅픽처엔터테인먼트는 마동석 캐릭터의 모습이 담긴 예고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마동석은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설정을 담아 내며 교도소 폭동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 '그라운드 제로'에 출연했다. 6월26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그라운드 제로'는 5일 현재 180여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8월 11일 개봉 영화 '싱크홀'...유쾌했던 온라인 제작 발표회 현장

“그놈의 광수” “섭외 후회”...광수가 어쨌길래?

(차승원)

(김지훈 감독)

차승원 “이광수 학구적 열정 곳”
김성균 “항상 광수만큼만 지시”
김감독 “너무 진지해 깜짝 놀라”



“분위기 메이커로 캐스팅했다. 하지만 너무 진지했다. 섭외를 후회했다.” 영화 ‘싱크홀’의 연출자 김지훈 감독이 배우 이광수를 가리켜 말한다. 그러자 주연 차승원은 “(광수가)부담스럽게 촬영장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촬영장에서 이광수의 학구적 열정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왔다”며 말을 받는다. 또 다른 주역 김성균도 지켜만 보지 않는다. “감독님이 ‘광수만큼만 하라’고 말하곤 했다”며 웃는다. 기어이 ‘그놈의 광수’가 “현장에서 유행어가 됐다”며 차승원이 덧붙였다.

8월11일 개봉하는 ‘싱크홀’(제작 더타워픽처스)의 촬영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광경이었다. 5일 오전 영화의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과 김지훈 감독은 저마다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말과 말로, 자신들이 의기투합했던 현장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다. 대체 이들의 입담을 따라갈 재간 있는 자, 누구일까. 거침도, 망설임도 없이,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티키타카’처럼 이들은 농담과 너스레를 오가며 웃음을 자아냈다.

●재난 속 ‘웃픈’ 현실...배우들의 유머로

이들이 호흡을 맞춘 ‘싱크홀’은 순식간에 땅이 꺼지면서 무너져 내린 싱크홀과 그 속에서 빠져나가려는 이들의 이야기이다. 11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가정(김성균)과 그의 집들이에 초대된 이광수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일상생활 속에서 분투해가는 이웃(차승원) 등이 얽히고설켜며 지하 500m 싱크홀에 갇힌 채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다.

영화는 배우들의 이름만으로도 슬며시 웃음 짓게 하는데, 위험한 재난의 상황을 담아내며 현실에 해학의 시선을 던진다. 그리고 ‘웃픈’(웃기지만 슬픈) 세상 살이를 풍자한다. 이광수는 “소재는 물론 재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접근도 신



배우 차승원·김혜준·김성균·이광수(왼쪽부터)가 5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영화 ‘싱크홀’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쇼박스

싱크홀에 갇힌 사람들의 탈출기 위험한 재난상황을 웃프게 풍자 이광수 “소재와 접근, 신선했죠”



영화 ‘싱크홀’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쇼박스

선했다”고 말했다.

차승원은 “배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역할에 맞다.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지훈 감독은 이에 화답하듯 “내가 아는 차승원과 극중 캐릭터가 그냥 맞았다. 그의 유쾌함이 좋았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과잉과 넘침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시나리오를 건넨 다음 날 차승원으로부터 (출연 수락)전화를 받았다는 감독은 “25년째 영화를 해왔는데, 보통 (배

우들은)이름 정도는 품고 전화를 준다. 그런데 차승원이 갑자기 전화해 난감했다. 우리도 간을 봐야 했는데”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차승원은 “시나리오를 받은 그 날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자존심에 상해 다음 날 아침 전화했다. 혹시 다른 배우를 선택할까 봐”라며 예의 유머를 발휘했다.

●감염병을 물어라!

‘싱크홀’은 28일 개봉하는 ‘모가디슈’와 함께 올해 여름 시즌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개봉 소식을 알리며 감염병에 맞서는 또 한 편의 한국영화로써 당당히 출시표를 던졌다.

차승원이 선두에 섰다. 그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았던 올해 4월 초 영화 ‘낙원의 밤’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감염병 사태에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싱크홀’까지 잇따라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그는 “2년째 엄중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텐데 ‘싱크홀’이 지친 마

음과 몸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감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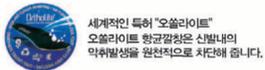
영화 제작진은 개봉일을 최근 확정된 뒤 일찌감치 5일 제작발표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그만큼 영화와 관련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차승원과 김성균, 이광수 등 배우들도 힘겨운 시대, 웃음을 녹여내며 완성한 이야기에 대한 제작진의 자신감이 관객에게 위안을 주며 극장이 흥행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연예수 기자 tadada@donga.com

❓ 싱크홀(sink hole)이란?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 주로 석회암 등 퇴적암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지하수의 저주라고도 불린다. 자연적으로는 지하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 일정한 층이 만들어진 뒤 여기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빈 공간이 지층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순식간에 땅이 꺼져 생겨난다. 하지만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발의 형태교정 깔창특허
| 악취 제거 깔창특허
| 미끄럼방지 밑창 특허



모델명 에어 블랙 (AIR BLACK)

MADE IN KOREA 2021 최신제품! 가볍고 편한 300g 대의 AIR SHOES

100% 국내생산,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에어쿠션,편안한 착화감

이어 붙이지 않은 한 장의 가죽, 2744개의 숨쉬는 에어 홀
맨발처럼 시원한 '에어홀슈즈'

여름철이 되면 신발을 골라 신는것도 고민이 된다. 발에 땀이 많이 나고 악취도 심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신사화가 출시되었다. 이어 붙이지 않은 한 장의 통소가죽으로 2744개의 에어홀을 뚫어 통기성을 획기적으로

원터치 다이얼방식



이음새없는 통소가죽 충격흡수 에어쿠션

개선한 신사화다. 충격방지 에어쿠션을 장착하여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신사화다. 원터치 다이얼방식으로 신고 벗기도 편하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사화로 캐주얼화로도 적격이다. 조경량으로 무게의 부담이 없어 많이 걸거나 오래 서있어도 발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 천연소가죽의 부드러움과 광택을 잘 살려 고급스런 외형이다. 소가죽의 신축성으로 발의 양측을 잘 감싸주고 바깥에서 느껴지는 쿠션감이 매우 좋다. 밑창 상하로 미끄럼 방지 패드를 내장하여 빗길이나 물에 젖은 계단 등을 오를 때 미끄러움을 현저히 감소시켜 주어 안전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여름에 신는 신발인 만큼 통기성이 좋아서 발이 시원하다. 이어 붙이지 않은 천연소가죽의 광택과 어울어진 에

어홀이 신사화의 품위를 더해 준다. 최고급 가죽과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퀄리티를 한 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신제품 신사화다.

기준가 : 198,000원

출시기념 / 파격가 : 79,000원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천연소가죽에도 등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은 가죽의 표피만을 사용합니다. 표피를 벗겨낸 소가죽에 코팅을 하여 사용하는 가죽을 일명 코팅(액션)가죽이라 합니다. 이런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가죽의 통풍구를 막아 땀이 차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슈즈는 최상의 천연소가죽으로 가죽의 표피만을 사용하여 통풍성과 신발의 부드러움이 액션 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 제품을 만나보세요.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6개월 무상 A/S 보장!

NAVER 신수테크쇼핑 검색

인터넷, 모바일 구입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 일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1566-1788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신수테크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